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

4/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5:8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 4:23

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 10:22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행 11:23

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요 14:1

1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요일 3:20

20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 78:8

8 자기들의 조상처럼 고집 세고 거역적인 세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세대,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우리의 혼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자아이다.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영어
단어는 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프쉬케(psuche)’에서 유래된 것이다. 혼은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바탕이다. 프쉬케 즉 혼은
‘나’이며,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사람 대신 때때로 혼으로
표기한다(출 1:5 각주 1 참조). ... 이것은 인격이
혼임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혼이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사람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외적 기관으로서 몸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영역을 접촉하는 내적
기관인 영을 갖고 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06-2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의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하는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대표가 우리의 마음이다.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그의 마음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마다,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대표,
즉 우리의 내적 존재의 행동하는 위원 또는
대사이다.

잠언 4 장 23 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실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호하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잠언 4 장
23 절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유기적인 요소, 즉
생명의 요소를 함축한다. 또한 ‘생명’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행동, 즉 우리 인간 생활 전체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잠언 4 장 23 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사람의 생명은 유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스위치’가 마음이다. 우리의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은 신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에 달려 있다.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07-208 쪽)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의
법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의 다양한 속부분들 안에서 작용하여,
그 결과 여러 법들이 된다.

생명이 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하며, 생명이 영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이다.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이다. 따라서 생명이 들어가는 것과 생명이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이뿐 아니라 마음은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생명은 들어오지도 원활하게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열리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 ...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참으로 생명의 스위치이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생명이 작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마치 발전소의 전력과도 같다. 발전소의 전력은 강하지만, 그 전력은 방 안에 있는 전등을 켜고 끄는 작은 스위치의 통제를 받는다.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전기는 들어올 수 없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0-20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소책자, 사람의 부분들; 하나님의 경륜, 개정 2 판, 6-7 장*

4/2 화요일

아침의 누림

겔 36:26

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마 13:8

8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딤후 2:22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딤후 1:5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 73:1, 25-26

1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좋으신 분.

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26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뭍이십니다.

고후 5:14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 장 8 절에서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한 마음은 그 땅 구석구석에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백 배나 거두게 한다(마 13:23).(마 13:8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마음이 생명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조절되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실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네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 것이다. 부드럽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사랑하지 않은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문제이다. ...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네 방면을 처리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가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고기 같은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겔 36:26).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웠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돌아서고 다시 굳어진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상태가 올바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계속 부드러워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정도까지 부드럽게 되도록 처리받아야 한다. 그럴 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일들에서 부드럽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는 순간 그들은 매우 강박해진다. ... 또 어떤 형제자매는 다른 모든 일에는 완고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면 부드러워진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가? 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그분의 징계로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은 종종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치신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마음은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마음을 의미한다. 순수한 마음은 또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다(참조 고후 11:3).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원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거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영 안의 생명 또한 이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딤후 2:22)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해 드릴 수 있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4-2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4/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5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빌 4:7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 1:1-4

1 솔로몬의 아가.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3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후 3:16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엡 6:24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일 1:9

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골 3:15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애정을 갖는 마음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구약에 있는 아가라는 책이다. 아가는 여인이 자신의 연인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랑은 너무나 깊고 변하지 않으며 죽음만큼이나 강하다(아 8:6-7). 이 책은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21 장에 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감정을 이끄시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결과 베드로가 그분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베드로 안에서 운행하고 자랄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 생명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 만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운행할 수 있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음의 기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존재에서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 장 30 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 절은 “그대는 마음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다. … 마음만이 사랑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 모든 사람은 주님 자신이든 그 밖의 다른 것이든 무언가를 사랑한다. 마음을 주님께로 더 많이 돌이킬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더욱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나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기능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체험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 번째 체험인 구원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 중에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어쩌면 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을지라도, 깊은 속에 달콤한 사랑의 느낌이 있다. 비록 그에게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지라도, 그의 구원에 대한 초기의 체험은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반향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지속적으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 깨끗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락한 원인은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신선한 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신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 주님께 돌이키고 계속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 개정 2 판, 7 장, 110-111 쪽)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평안한 마음은 거리낌이나 유죄판결이나 책망이 없는 양심(행 24:16)을 가진 마음이다. 따라서 평안한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통치한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책망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요일 3:2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도록’(요일 3:19) 양심의 모든 거리낌과 책망과 비난을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할 수 있다.(생명의 인식, 개정판, 10 장, 207-208 쪽)

빌립보서 4 장 7 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는 ‘수비하실 것입니다’를 의미한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빌 4:7 각주 3)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0-22

4/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1:21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후 3:14, 18

14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동일한 너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4, 6-7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나쁜든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든 인정받지 못할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관념은 어둠 속에 있으며, …

이 관념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막는다. ...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이 겉으로는 합당하고 올바르게 보여도 실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구원받은 날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 가이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41-42, 44-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모두 안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긴다. ...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보통 곧바로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통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지속적인 운행과 움직임에 따라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만지실지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참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몇몇 것들이 합당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아내를 구박하거나, 남편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했음지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는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까지 갖게 될 것이다. ...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지시어 우리가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다. ...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짓된 영성은 ... 사실상 생명을 가로막는 커다란 방해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려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동정심이 많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많은 장점과 미덕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은 이러한 타고난 미덕들도 함께 교회생활 안으로 가져온다. 그들은 이러한 미덕들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미덕들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마땅히 이러한 미덕들을 지녀야 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미덕들은 거짓된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이며 성령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이 아니다. ... 생명은 오직 여러분 안에서부터 표현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질을 내지 않는 기질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화나게 하려고 애써도 성질을 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참는 것이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질을 내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며, 이러한 기질은 쉽게 바뀔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면서 그들이 솔직하고 강하게 말하도록 밀어내실 때, 그들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거스르고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여 솔직한 말을 한다면 생명이 표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적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일 것이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45-46, 49-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개정 2 판, 8-9 장;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4 장

4/5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0:4-5

4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5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요일 2:27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엡 4:30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고후 2:13-15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 비록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생길지라도, 생명의 길은 잃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께 반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 머무르며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 대신에 복음 친구에게 말을 걸거나 형제자매들과 교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방문한다면, 분명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불순종한다. ... 우리는 자주 이렇게 그분께 반역한다. 반역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 된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53-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기질과 자아는 모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과 재능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 세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기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신의 천연적인 역량이 가진 문제를 깨닫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천연적인 역량과 재능이 매우 뛰어난 한 무리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자.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접촉할 때, 그가 감지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역량과 재능뿐이다. 그것은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결코 파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의 역량에 직면하시면 그들을 통과하실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 중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지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러한 역량과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는지 보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은 이러한 항목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있게 된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54-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인식, 개정판, 6, 13 장

4/6 토요일

아침의 누림

살후 3:5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롬 12:2-3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고후 3:2-3, 6

2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영과 협력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영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다... 비록 우리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문제이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4 장. 65-66, 6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또한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관념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영 안에서 아내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셨다. 그의 생각으로 이러한 느낌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그의 의지가 완고하여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제는 아내 앞은 고사하고 주님께도 복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한다.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는 둘 다 하나님의 생명에 방해물이다. 처리받은 의지는 강하면서도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거나 완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필요가 발생할 때, 유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확고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이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나오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 큰 문제이다. 신약은 단지 우리가 그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엡 4:23, 롬 12:2, 고전 2:16, 빌 2:5, 13). 신약을 쓴 사도들은 성령의 의도를 알았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신약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대해 그토록 많이 다루는 이유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르게 해 ... 주시기를 바랍니다.”(살후 3:5)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분노와 슬픔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사랑과 분노와 슬픔과 기쁨이어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이 하나의 감정이 되었다.

우리는 한 가지 큰 원칙을 보아야 한다. 이 원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서 나와야

하고, 강하고 유연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길을 얻을 수 있다. ...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혼의 각 부분과 모든 부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과 주님의 느낌에 협력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실 것이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4 장, 68-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개정 2 판, 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인식, 개정판, 13장

찬송: 537 (英) 실제 되신 그리스도 (中:397)

1 내게 주관적인 주-님 이제 내- 안에 사서 주는 만유 포함한 영 나와 하-나 되셨네
(후렴)

주관적인 그-리스도 참- 부요하고 달콤해 모든 것을 포함한 주 내- 모든 필-요 채우네.

2 내게 주관적인 주-님 항상 생-명 공급해 성령으로 나를 살려 매일 새-롭게 하셔

3 내게 주관적인 주-님 나의 전-체 변케 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그의 형-상 되게 해

4 내게 주관적인 주-님 나를 자-유케 하네 생명과 능력의 법이 죄와 죽음서 해방해

5 내게 주관적인 주-님 매일 나-를 다스려 인도하며 바로잡네 항상 모-든 길에서

6 내게 주관적인 주-님 나를 만-족케 하네 모든 풍성 공급하셔 주 충만-증언케 해

4/7 주일

아침의 누림

빌 3:7-14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꾀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빌 4:4-7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